

##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

- 제약·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('18.8.30.) -

### 1. 배경

- 제약·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('10~'16) 약 5.2% 성장해온 유망산업으로서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연구개발임
  - 국내 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&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\*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    - \* R&D지출규모: pfizer 약 8.6조원 vs 셀트리온 약 0.2조원 ('17년 기준)
  -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제약·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
- 이러한 배경에서 금감원은 제약·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\*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
  - \* 주요 이슈: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
  - 이는 우리 제약·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·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함
  -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·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\*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,
    - \*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 8개사가 바이오 기업('18.8.29., 기준)
  -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업계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
  - 많은 제약·바이오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,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
- 시장의 이러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제약·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,
  - 관련 이슈를 짚어보고 적극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## 2. 향후 정책 및 감독 방향

-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(IFRS)의 기본 취지는,
  - 회계기준에서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, 기업은 이를 토대로 개별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여, 투자자에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
-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,
  - 감독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
-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이지만, 아직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“원칙중심”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임
  - 특히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
    - 예를 들어, 국내 제약·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,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으로 짐작됨
- 이러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
  - 오늘 회의에서도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국내 업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함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약·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함

① 첫째,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「제약·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음

○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,

-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

○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,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

⇒ 그동안 청취한 시장 의견과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음

② 둘째, 제약·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‘대화과 지도’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

○ 감리 결과, 중대·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,

-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음

○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음

-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

⇒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「감리선진화 TF」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

③ 셋째,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·지원하면서,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

○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

⇒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음

○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람

### 3. 마무리

□ 오늘 이 회의가 제약·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회계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,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